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② 06. ② 07. ④ 08. ④ 09. ⑤ 10. ③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③ 16. ③ 17. ⑤ 18. ② 19. ⑤ 20. ④

1.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며, 영혼을 돌보고 참된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는 우주나 자연의 근원을 탐구한 자연 철학자들과 달리 인간과 사회의 구체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 ②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③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지혜를 얻어 참된 행복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 보았던 트라시마코스를 비판하였으며, 권력 획득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2. 노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노자는 무위(無爲)의 덕을 따르는 무위자연의 소박한 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노자는 인위적 조작을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질서에 따라 무지하고 무욕한 자세로 살아야 소박한 덕을 지닌 무위자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ㄱ). 장자는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의 인위적分別과 집착을 잊는 좌망(坐忘)을 통해 참된 나를 회복하여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노자는 만물 간 위계와分別은 인위적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일체의 인위적 구분을 버리고 무위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 ㄹ. 노자와 장자는 모두 예법(禮法)을 세상이 혼란해지며 생겨난 인위적 규범으로 보아 비판하였다.

3. 석가모니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았다. 석가모니는 법(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연기(緣起)의 가르침일지라도 집착한다면 괴로움이 생기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苦行)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제시하였다.
- ③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열반(涅槃)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석가모니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無明)을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라 하며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석가모니는 현생에서 지은 업(業)의 결과는 이번 생(生)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고 보았다.

4. 듀이와 사르트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듀이, 을은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보고,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로 자신의 선택과 책임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 불안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게 하여 참된 실존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듀이는 지식을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고,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보았다.
- ② 듀이는 정직과 근면의 덕을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로 보지 않고,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 ③, 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으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다.

5.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올바른 이성인 실천적 지혜를 동반하는 품성이며, 실천적 지혜를 갖추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을 가진다고 보았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음으로 인해 얕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의 얕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자제력 없는 상태의 얕이라고 보았다. 결국 실천적 지혜는 자제력 없음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이성의 상태로서의 참된 얕인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에 맞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좋음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정과 공동체의 좋음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단순히 덕의 능력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활동으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의 최고선이며,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유덕한 활동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활동은 단순히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6. 플라톤과 흄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흄이다. 플라톤은 이성이 욕구와 기개를 다스리며,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 하여 이성은 목적을 규정하지 못하고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ㄱ). 플라톤은 참된 지식의 궁극적 원천을 이성이라 보았으며, 이성을 통해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흄은 모든 지식의 원천은 경험과 관찰이라고 보았다(ㄴ).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개, 욕구로 구분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비이성적인 부분인 욕구와 기개를 잘 다스리고, 욕구와 기개는 이성을 잘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비이성적인 부분인 기개와 욕구는 이성을 거슬러 서로 반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흄은 이성은 감정과 반목할 수 없으며,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므로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역할도 없다고 보았다.

ㄷ. 흄은 선악의 근원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찾으며, 선악은 시인과 부인의 감정, 즉 도덕적 감정에 있으므로,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7. 이황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기(氣)가 발할 때 이(理)의 주재로 나타나는 감정은 칠정이라 하였다. 칠정은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 감정이라고 보았다(ㄱ). 이이는 불선의 원인을 기질의 흐림과 치우침에서 찾고, 성(誠)의 수양을 통해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이황과 이이 모두 본연 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이이는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칠정인 사랑[愛(애)]은 사단인 측은지심을 포함한다.

8.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마르크스의 입장이고, (나)는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마르크스는 단순히 공장제 수공업의 폐지만으로 노동 소외가 극복된다고 보지 않

았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되어야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급이 소멸한 공산 사회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③ 민주 사회주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으며, 모든 정치 조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민주 사회주의는 노동 착취 해소를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9. 혜능과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혜능과 지눌은 선정[定(정)]과 지혜[慧(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혜능은 자신의 마음속의 불성(佛性)을 고유한 독자성으로 보지 않았다. 혜능은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의 독자성을 지닌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혜능은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마음속의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깨달음은 밖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지눌은 문자화된 부처의 말씀도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눌은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라 하여, 선종과 교종이 제시하는 궁극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지눌은 정혜쌍수를 통해 선종과 교종의 합일을 도모하였다.

④ 지눌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 이를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신의 영원한 법칙인 영원법에 따라 다스려진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신의 창조 계획인 영원법이 인간과 동식물의 자연적 성향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지복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 중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며, 절제, 용기, 정의, 지혜는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④ 아퀴나스는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를 자연법의 제1원칙이라 하였으며,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로 설명하였다.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잘못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11. 아우렐리우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과 신을 동일한 부류로 묶는 공통 본성을 이성이라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내는 여러 양태일 뿐이므로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보지 않았다(ㄱ). 아우렐리우스는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정념에 지배당하는 것은 불행하다고 보고, 정념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행복으로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의지를 가진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

ㄹ. 스피노자는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보존 노력을 기울이는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은 선으로, 해로운 것은 악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12. 순자와 맹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맹자는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왕도(王道) 정치의 근본으로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순자는 하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것[天人之分(천인지분)]을 강조하며,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법칙[天(천)]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순자는 인간의 성정(性情)은 본래 악하지만, 성인(聖人)에 의해 제정된 인위(人僞)로서의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하게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구성원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④ 맹자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고[求放心(구방심)],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쁨으로써 대장부(大丈夫)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본심을 잃으면 대장부가 될 수 없다.

⑤ 맹자는 인간은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良能)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13. 에피쿠로스와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고통 자체는 자연적이며, 사치,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처럼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한계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③ 밀은 타인을 위한 자기 선의 희생을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보지 않았다. 밀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선으로 보았다.
- ④ 밀은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고등한 정신적 능력의 발휘에서 비롯되는 쾌락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교양의 증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에피쿠로스와 밀 모두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보았다.

14.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선의지는 그것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선하며, 그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이나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칸트는 선의지는 오직 그 자체만으로도 보석처럼 빛을 내며 자기 자신 안에 완전한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선의지의 존엄성은 선의지 자체에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인 선의지, 즉 의무에서 비롯된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선의지의 의욕은 개인이 세운 준칙 중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객관적 법칙인 도덕 법칙이 된다고 보았다.
- ⑤ 칸트는 선의지는 인간의 경향성에 방해받더라도 그 가치가 결코 훼손될 수 없으며, 무조건적·무제약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15.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심즉리)]라고 보았으며, 치지(致知)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주희는 지(知)와 행(行)을 경중으로 논하면 행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궁리(窮理)보다 역행(力行)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주희는 지와 행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주희는 격물(格物)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의념이 향하는 대상[事(事)]을 바르게 하는 것은 왕수인의 입장이다.
- ④ 왕수인은 양지는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 ⑤ 왕수인은 인욕이 양지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고, 인욕을 극복하여 마음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6. 홉스와 로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자연법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연법은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홉스는 자연권은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권리라고 보았다.
- ② 홉스는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 주체들의 합의로 성립한 인공적 인격이라고 보았다.
- ④ 로크는 입법부는 시민의 신탁(信託)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만약 신탁을 위반하면 시민은 입법부를 교체하거나 입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 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의적인 마음[道心(도심)]에 상충되는 욕구[人欲(인욕)]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天命(천명)]에 근거한 본성[天命之性(천명지성)]인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니며,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닌다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인 사단(四端)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단을 확충한 이후에야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상제(上帝)를 이법적 실체[天(천)]로 보지 않았다. 정약용은 상제는 우리의 마음을 직접 모두 살펴보고, 도심(道心)을 통해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잘못을 경고해 주는 존재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상제로서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공부인 신독(愼獨)을 강조하였다.
- ④ 정약용은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을 영지의 기호라고 보았으며,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자 하는 욕구이므로, 악으로 기울 수 없다고 보았다.

18. 비롤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이다.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시민이 정치와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도덕적 열정이며, 이는 공적인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게 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으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며, 자유로운 공화국에 대한 도덕적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ㄹ.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 사랑이라고 보았다.

19. 롤스와 숨페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숨페터이다. 숨페터는 시민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지니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경쟁적으로 권력을 다투고, 시민은 투표로 대표자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규정하였다. 롤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 공직자, 전문가가 모여 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숨페터는 시민의 역할은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롤스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권력이나 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숨페터는 시민 전체의 의견에 근거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숨페터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라고 보았다.
- ④ 롤스는 선출된 정치권력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20. 동도서기론과 동학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동도서기론, (나)는 동학사상이다. 동도서기론은 우리의 도(道)를 근본으로 하되, 서양의 기(器)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유교적 가치[正德(정덕)]는 서양의 물질문명[器(기)]과 병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ㄱ). 동학사상은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誠)과 경(敬)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동학사상은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ㄹ. 동학사상은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강조하며, 새로운 세상, 즉 후천은 반드시 현재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